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14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단	담 당 자	• 유치지원팀장 한창현 ☎440-3406 • 담당자 최성현 ☎440-340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6: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뉴 홍콩시티’ 조성 방안 논의

-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방문해 제임스 김 회장과 상호협력방안 논의 -
 - 인천시, ‘뉴 홍콩시티’ 조성 등 인천 투자 협조 요청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한상을 초일류도시기획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제임스 김 회장과 함께 ‘뉴 홍콩시티 인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뉴 홍콩시티 인천’ 조성과 관련해,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미국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외국기업의 기업 활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문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을 인천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인천은 홍콩과 같이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돼 있어, ‘기업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시’”라며, “특히 금융, 바이오기업, 연구개발센터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인천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은 여러 면에서 아태지역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말하며,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엠,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의 암참 회원사는 인천의 매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암참은 한·미 양국 정부와 재계 간 연결고리가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감은 물론, 앞으로 인천이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